

産後浮腫의 琥珀과 南瓜의 오용에 대한 문헌고찰

안상영, 한창현, 권오민, 박상영,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Literature research on the use of succium and pumpkin in postpartum edema

Sang-Young Ahn, Chang-Hyun Han, Oh-Min Kwon, Sang-Young Park, Sang-Woo Ah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 In Korea the practice of folk remedies is widely spread. One of the main uses is the utilization of pumpkin in postpartum edema. While this practice is widely propagated no one could exactly define the evidence of its uses. Therefore we aimed to provide literature evidence of correct prescription in postpartum edema.

Methods : As the use of pumpkin in postpartum edema is particular to korea, we revised all the medical books published from the 17th century, the time supposed to have been introduced pumpkin in Korean peninsula. We also researched the prescription mainly used in postpartum edema, and the common main herbal component, succium. As pumpkin and succium is homophony to 'Ho bak' in korean it had the possibility of being misinterpreted.

Results : On our literature research we found the precautions of pumpkin to provoke gi-stagnation

-
- 교신저자 : 안상우
 -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로 483 한의학연구원
 - Tel : 042-868-9442 E-mail : answer@kiom.re.kr
 - 접수 : 2009/ 07/ 20 채택 : 2009/ 12/ 02

and dampness obstruction and that it was restricted while the recovery of all kind of diseases as well as in puerperium.

The main reason of postpartum edema is caused by blood stasis which when the blood gains its normal circulation, edema is dispersed by itself. For this propose main prescription was Jogyongsan 調經散 type with its main component succium which medical properties are cited in all medical classics consistently.

From the literature of 『Juchonsinbang』 and 『Uibanghapbu』 we found three different prescriptions, Hobakgo 琥珀膏, Hobakgo 胡朴膏, and Namgwago 南瓜膏 which contents and their medical proposes were equal.

Conclusions : By these finding we could refer that the use of pumpkin in postpartum edema was caused by homophonic reasonal misinterpretation of succinum in korean. This research provides the literature evidence to correct pumpkin's misuse and also the necessity of restriction of the use of even most common products for medical proposes and/or at least the importance of being guided by the experts.

Key word : pumpkin, succinum, postpartum edema, folk remedies

1. 서론

『東醫寶鑑』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鄉藥을 일반 백성이 알기 쉽게 한글로 병기하였다. 이를 통해 窮村의 백성들도 한약의 활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였다. 각 門에 있는 單方은 치료의 간편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약을 對症의으로 사용해도 됨을 뜻하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民間療法에 관련된 서적들이 시중에 많이 출판되고 있는데 이들의 저자들의 직업은 대체로 한의사가 약 반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무자격증이나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¹⁾.

이러한 상황에서 民間療法에 대한 지식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된다. 이 등²⁾의 연구에 따르면 民間療法에 대해 “집안 웃어른들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이웃으로부터”, “전문서적 및 매스컴을 통해서”, “한의원 및 의료기관을 통해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환에 있어서는 간장질환, 혈압, 중풍, 호흡기계 질환, 부인병, 비뇨생식기계 질환, 안과질환, 신경질환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民間療法이 반드시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에 환자의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이해

해야 하며 환자와 의료인 간의 관계형성을 위해서도 과학적 의학뿐만 아니라 民間療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치료과정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民間療法이 삶을 영위하는 과정 중에서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자연요법으로 논리성, 객관성, 문헌 및 실험적 근거가 결여된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산후의 경우에는 허약해진 원기를 보충하거나 산후에 발생한 부종을 제거하는 것이 民間療法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미역국, 쇠고기국, 마른 명태국, 잉어, 가물치, 해산물 그리고 호박국을 들 수 있다³⁾.

産後浮腫은 婦女가 출산 후에 발생하는 안면이나 사지의 浮腫을 말하는 것으로 婦女의 생리적인 특성과 산후라는 특별한 여건 하에 일어나는 부종이므로 褥婦의 전신적인 생리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또한 일정기간의 산후조리와 섭생상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일부 건강원이나 민간요법에서 무차별적으로 南瓜호박을 産後浮腫의 권하고 있는 현실에서 南瓜호박에 대한 문헌적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며, 이런 분석 중에 琥珀이 오용되고 있음을 찾아내었다. 이러한 오용의 원인은 同音異語에서 기인한다는 문헌적 근거를 찾아내어 本草의 올바른 적절하게 제한되는 사용을 위해서 본고를 발표한다.

II. 본 론

1. 琥珀의 문헌고찰

琥珀(Succinum)은 紅松脂라고도 하는데 소나무속 식물 Pinus spp. (소나무과 Pinaceae)의 수지가 땅속에서 오랜 세월을 경과하여 화석이 된 것이다. 이 약은 불규칙한 덩어리이며 때로는 과립상~다면상을 이룬다. 바깥면은 황갈색~검붉은색 또는 흑갈색을 띠고 불투명하며 松脂와 비슷한 광

택이 있다. 깨트리면 조개껍질 모양을 하며 질은 단단하고 부서지기 쉽다. 자른면은 광활하고 색깔이 같지 않으며 손으로 만지면 깔깔한 촉감이 있다. 이 약은 진항 홍색을 나타내고 벌 또는 개미 등의 중체가 들어있는 것을 양품으로 한다⁴⁾.

본고에서 琥珀의 효능과 이용에 대한 문헌고찰을 진행하였다. 특히 産後浮腫과의 연관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 産後浮腫과 관련된 효능주치

琥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名醫別錄』⁵⁾에서 보인다. “琥珀味甘平無毒. 主安五臟 定魂魄 殺精魅邪鬼 消瘀血 通五淋. 生永昌”라고 하여 瘀血을 없애고 五淋을 치료하는 효능을 기재하였다.

이후에 나온 본초서는 이를 충실히 따르며 그 용례를 넓혀간다. 『開寶本草』⁶⁾에서는 『名醫別錄』의 내용 외에 다른 醫家들의 내용이 추가된다. 그중에 부인과 瘀血과 관련된 내용으로 “陶隱居云刮屑服. 療瘀血至驗. 唐本注云 補心安神 破血尤善. 陳藏器本草云 琥珀止血生肌 合金瘡. 和大黃, 鱉甲作散子, 酒下方寸匕, 下惡血 婦人腹內血盡即止”라고 하여 瘀血을 없애는데 지대한 효험이 있고, 大黃과 鱉甲을 이용하여 散劑로 만들면 婦人 腹內의 瘀血을 모두 없앨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本草發揮』⁷⁾에서는 『名醫別錄』내용 외에 “潔古云屬陽利小便清肺”라고 하여 琥珀의 藥性을 나타냈다.

『本草綱目』⁸⁾에 이르러서는 효능과 주치가 대폭 확대된다. “壯心, 明目磨翳 止心痛癩邪 療蠱毒止血生肌 合金瘡”이 새로 확충되었으며 消瘀血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破結痕 治産後血枕痛”로 구체화하였다.

작가 미상의 朝鮮 本草書인 『本草精華』⁹⁾는 李時珍의 『本草綱目』이 나온 이후 朝鮮 藥物學에 미친 영향이 반영되었다. 『本草精華』에서도 “破結痕, 治産後兒枕痛, 削服療瘀血至驗”이라고 하여 瘀血에 대하여 효능을 주창하였다.

『本草蒙筌』¹⁰⁾에서 새로 밝힌 부분은 “琥珀이 金

에 속하여 陽의 성질이 있다”는 점과 “治產後血暈及兒枕疼”이라 하여 용례를 구체화한 것이다. 『本草集要』¹¹⁾에서도 『本草蒙筌』과 유사한 설명을 진행한다.

『本草求真』¹²⁾에서는 귀경을 설명하였다. “專入心 肝 兼入小腸 腎 甘淡性平. 色赤能入心 肝二經 血分 合以辛溫等藥 即能消瘀破癥”라고 하여 琥珀의 묽은 빛깔로 心과 肝으로 작용하여 辛溫한 약재와 배합되면 消瘀破癥의 효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本經疏證』¹³⁾에서도 이러한 藥性에 따른 효능 설명이 이어진다. “琥珀의 검붉은 색은 水에서 火가 빛나는 것이며, 반짝거리는 특징은 火에 水가 응결한 것이다. 불이 물을 막으면 淋疾이 되고, 물이 불을 어기면 瘀血이 된다. 그래서 琥珀은 淋疾을 소통하고 瘀血을 없앤다.”라고 하였다.

『御制本草品匯精要』¹⁴⁾에서는 藥性論의 “除百邪 產後血瘀痛”을 언급하여 구체적으로 산후질환을 다스림을 나타내었다. 이 외에도 “明目 摩翳 壯心”의 효능이 기재되었다. 『新修晶珠本草』¹⁵⁾에서는 眼疾患과 관련하여 “治眼花 視力模糊”라고 하여 구체화하였다.

『中華藥海』¹⁶⁾에서는 活血祛瘀의 효능과 귀경을 “心 肝 脾 膀胱 小腸 肺”로 설명하였다. 『實用中草藥彩色圖集』¹⁷⁾에서도 心, 肝, 膀胱經으로 귀경하여 活血散瘀와 利水通淋의 효과를 밝혔다. 『全國中草藥匯編』¹⁸⁾에서도 活血 利尿의 효능으로 琥珀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역대 本草書を 살펴본 결과 『名醫別錄』에서 消瘀血 通五淋이라고 설명한 이후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活血祛瘀 利水通淋의 효능을 밝히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陳藏器本草云 琥珀止血生肌 合金瘡. 和大黃, 鱉甲作散子, 酒下方寸匕, 下惡血. 婦人腹內血盡即止, 破結癥 治產後血枕痛, 治產後血暈及兒枕疼, 除百邪 產後血瘀痛”라고 하여 瘀血중에서도 특히 產後에 나타나는 증상, 그 중에서도 특히 兒枕痛, 血暈을 주치하며

辛溫한 약들과 배합되었을 때 이러한 消瘀破癥의 효능이 발휘된다고 하였다.

活血祛瘀의 효능은 趙 등¹⁹⁾이 琥珀을 이용하여 나팔관 폐색성 불임 환자를 치료한 보고도 이를 뒷받침한다.

2) 琥珀의 용례 분석 및 주의사항

本草學의 설명 외에도 琥珀이 처방에 사용된 용례와 주의사항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였다. 처방의 용례는 韓醫書 중 處方名에 琥珀이 명명된 것으로 한정하였다.

『壽世秘訣』의 琥珀丸²⁰⁾

止血生肌, 鎮心明目, 破癥瘕氣塊. 產後血運悶絕, 兒枕痛, 竝宜餌此方. 用琥珀一兩, 鱉甲一兩, 京三稜一兩, 延胡索半兩, 沒藥半兩, 大黃六銖, 熬搗爲散, 空心酒服三錢匕, 日再服, 神驗莫及. 產後, 即減大黃.

琥珀丸은 止血生肌, 鎮心明目 외에 癥瘕와 氣塊를 파헤친다. 산후에 피가 잘 흐리지 못하거나 瘀血로 아랫배가 아플 때에는 모두 마땅히 이 처방을 복용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兩無神編』의 琥珀散²¹⁾

琥珀散, 止血生肌, 鎮心明目, 破癥氣塊. 產後憫絕, 兒枕痛, 并用此方. 琥珀 鱉甲 京三稜 各一兩, 玄胡索 沒藥 各五錢, 大黃六銖, 熬搗爲散. 空心酒服三錢匕, 日再服, 神驗莫及. 產後, 去大黃.

琥珀散 역시 琥珀丸과 효능주치는 비슷하다. 이는 모두 출산 후 증상과 兒枕痛 등 산후의 증상에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주의사항에 대한 기재는 적은 편이다. 『本草精華』⁹⁾에서만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震亨曰 古方用爲利小便, 以燥脾土, 脾能運化, 肺氣下降, 故小便可通. 若血少不利者, 反致其燥急之苦. 簡誤: 是消磨滲利之性, 不利虛人. 凡陰虛內熱, 火炎水涸, 小便因小而不利者, 勿服.”라 하여 脾土를 건조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血少하여 小便不利가 있는 자와 陰虛하여 속에 열이 있는 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부분은 南瓜호박과의

비교 검토 시점에 있어서 중요하다. 주의사항을 근거로 產後浮腫 활용이 제한되는 것은 琥珀이 아니라 南瓜호박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南瓜호박의 문헌고찰

南瓜호박은 약 10여개의 野生種과 5개의 栽培種으로 분류되고 있다. 재배종 가운데 우리는 편의상 한국 在來가 속하는 동양호박(*Cucurbita moschata*)과 서양호박(*C. maxima*)으로 나눈다. 이들 중, 서양종은 잎, 과경, 종자가 형태적으로 뚜렷하게 구별된다²²⁾.

Cucurbita maxima DUCHESNE 는 남미의 온대지역에서 유래한다. 페루에서 발굴된 *C. maxima* 씨의 연대측정 결과 B.C 1,800년으로 나타났다.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미대륙이 발견된 이후 전 세계의 열대·아열대 지역을 위주로 퍼졌으며, 따뜻한 여름을 갖고 있는 온대지역에도 분포한다²³⁾.

南瓜호박이 동양에는 대략 明末 부터 재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明末에 출간된 『本草綱目』에 호박南瓜이 기록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정확한 호박南瓜의 도입연대는 알려지지 않았다. 『東醫寶鑑』에 호박南瓜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許筠의 『閑情錄』(1618)에 호박南瓜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국내에는 1600년대 초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⁴⁾.

이러한 이유로 醫書에서 南瓜호박의 기록은 제한적이다. 중국과 한국의 醫書を 바탕으로 南瓜호박의 본초 효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南瓜호박의 효능주치

『本草綱目』⁸⁾에는 “甘 溫 無毒, 補中益氣, 同豬肉煮食更良 亦可蜜煎”이라고 하였다. 주의사항으로는 “多食發脚氣 黃疸, 不可同羊肉食 令人氣壅”라고 기재하고 있다.

『中華本草』²⁵⁾에는 “南瓜호박의 味는 甘하고 性은 平하며 肺, 脾, 胃經에 작용한다. 解毒消腫하는 효능으로 肺癰, 哮喘, 癰腫, 燙傷, 毒蜂螫傷을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滇南本草』에는 “橫

行經絡, 分利小便”, 『滇南本草圖說』에는 “補中益氣 寬利”, 『醫林纂要』에는 “益心, 斂肺”, 『食物考』에는 “開胃益氣”으로 정리하였다.

『淄博本草』²⁶⁾에서는 “甘 溫 歸脾 胃經 補中益氣 消炎止痛 解毒殺蟲”라고 하였다.

『全國中草藥匯編』²⁷⁾에는 부위에 따른 효능주치를 기재하고 있다. “南瓜子 甘 溫 驅蟲, 南瓜蒂 甘 平 清熱 安胎 治先兆流產 乳頭破裂或糜爛, 南瓜根 清熱 滲濕 解毒 治黃疸 牙痛, 南瓜藤 清熱 治肺結核”이라 하여, 南瓜호박 자체보다는 씨, 꼭지, 뿌리, 줄기의 효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南瓜蒂의 安胎 효능은 胞에 작용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라 하겠다.

『食療中藥藥物學』²⁸⁾에는 『本草綱目』과 비슷한 내용으로 “甘 溫 歸脾 胃經, 補中益氣 消炎止痛 解毒殺蟲”라고 하여, 현대적 활용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호박南瓜에 대한 韓醫書의 최초 기록은 1687년에 출간된 『舟村新方』²⁹⁾에서 확인할 수 있다. 藥性歌로 “南瓜甘溫, 補中益氣, 羊肉同食, 令人氣壅”라고 하여 『本草綱目』의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頭暈戰掉에 “호박南瓜 누르고 잘 익은 것과 참쌀 누룩가루 각 1되씩 술을 빚어 말갱게 될 때까지 기다려 2잔을 먹으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였다.

韓醫書의 검색을 위해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을 활용하였다.

『本草摘要』에서는 “南瓜[甘溫補中益氣]”라고 하여 『本草綱目』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本草精華』에서도 “南瓜 味甘溫無毒主補中益氣 時珍曰多食發脚氣黃疸不可同羊肉食令人氣壅”라고 하였다. 『本草從新』의 내용도 이와 같다.

1931년에 출간된 韓道濬, 金壽萬의 『鮮漢藥物學』을 살펴보면 “驅蟲劑로서 특히 條蟲을 驅함에 하나니라.”라고 밝히고 있다.

1929년에 발간된 李昌雨의 『壽世寶訣』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기재되었다. “保胎神妙湯 用黃牛

鼻一條煨存性南瓜蒂一兩煎湯服永不墮胎”라고 하여南瓜蒂를 安胎의 목적으로 처방한 것이다. 이는 『全國中草藥滙編』의 내용과 일치한다.

『수진경험심방』³⁰⁾에는 단방으로 眼球損傷과 鐵彈箭鏃銅鐵砲子이 살에 박혔을 때 활용하는 外治法도 보인다.

眼珠損傷 凡眼珠打出或觸傷腫痛 或火炮沖傷

南瓜瓢 搗爛厚付 外用布好勿動 漸次腫消 痛定 乾則再換 如瞳人未破 仍即視物 如無南瓜則 以生地浸酒搗付 亦可○牛口涎日點二次 避風即愈 忌酒并熱物

鐵彈箭鏃銅鐵砲子

并一切雜物 入肉 蜚蠊一名推車蟲巴豆四五粒 搗極爛付傷處 先止痛後作南瓜호박 搗融四圍付之 屢日必出 又鼠腦肝 搗付即出 又黑蟲搗付 出○藥箭入肉 箭已拔出 傷口腫爛 石雄黃末付 有水流出而愈

이를 통해 南瓜호박은味甘 性溫 無毒하며 脾, 胃, 肺에 귀경하여, 補中益氣의 효능을 위주로, 分利小便, 驅蟲, 解毒의 작용이 있으며, 南瓜蒂는 安胎의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南瓜호박의 부차적인 효능으로 分利小便의 효능이 있긴 하지만, 현재 건강원과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產後浮腫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헌적 근거도 찾아 볼 수 없었다.

2) 南瓜호박의 주의사항

南瓜호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주의사항이다.

南瓜호박의 주의사항은 『本草綱目』에서부터 보인다. 補中益氣라는 효능 외에 더 많은 부분을 “多食發脚氣 黃疸. 不可同羊肉食 令人氣壅”라는 주의사항에 할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本草綱目拾遺』에서 살펴볼 수 있다. “張石頑이 이르기를 南瓜호박은 至賤한 食品으로 《綱目》에 이르기를 많이 복용하면 脚氣와 黃疸이 발생하며 氣滯症을 발생하므로 羊肉과 같이 복용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藥性이 氣를 체

하게 하고 濕을 助長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즉 南瓜호박은 色은 黃色이고 味는 甘하여 순수하게 土의 기운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효능을 補中益氣라고 하여 中宮으로 귀경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土性은 濕土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氣의 運行을 방해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淄博本草』에서 “凡患氣滯濕阻之病忌服”라고 하여 이러한 논점을 뒷받침 한다. 그렇기 때문에 『中華本草』의 내용을 살펴보면 『滇南本草』에 “胃中有積者, 吃之, 令人氣脹作嘔逆, 發肝氣疼: 胃氣疼者, 動氣, 不宜多吃”라고 하였고 『滇南本草圖說』에는 “多食發脚疾及癩病. 同羊肉食之令人滯氣”라고 하였다. 『食物考』에 “瘡疾憂忌”라 하여 질병이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함을 나타낸다. 『本草省常』에는 이를 더욱 명확하게 “百病人皆忌之”라 기재하였고 『隨息居飲食譜』에는 구체적으로 “凡時病, 疔, 瘡, 疽, 痢, 脹滿, 脚氣, 痞悶, 產後, 痧瘴皆忌之”라고 하였다.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도 “與羊肉同食, 令人發水腫. 與牛猪肉同食, 尤助味無忌”라고 하였다. 洪鍾旭 등³¹⁾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는다면 복용치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南瓜호박은 기본적으로 助濕氣滯의 성질이 있어서 일체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활용을 금기시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효능주치에서 살펴본 小便分利의 작용도 건강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產後浮腫의 病理와 治法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음을 產後浮腫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3. 產後浮腫에 방제에 대한 문헌고찰

產後浮腫은 婦女가 출산 후에 발생하는 안면이나 사지의 부종을 말하는 것으로 產後水腫이라고도 하며 또한 妊娠浮腫이 치료되지 않아 산후에까

지 부종이 이른 것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產後水腫이라고도 한다. 產後浮腫은 婦女의 생리적인 특성과 산후라는 특별한 여건 하에 일어나는 부종이므로 褥婦의 전신적인 생리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일정기간의 산후조리와 섭생상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東醫寶鑑』³²⁾에서는 “產後浮腫, 此由敗血循經, 流入四肢故也. 血行腫消即愈”라고 하여 그 원인과 처방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產後浮腫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다수의 문헌고찰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產後浮腫에 頻用되는 방제와 主藥의 검토를 통해서 琥珀과 南瓜호박의 오용 가능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변 등³³⁾은 역대 52종의 문헌을 참고하여 產後浮腫에 대한 원인, 증상, 治方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產後浮腫에 사용된 처방을 분석하면 敗血로 발생한 부종에 활용되는 調經散類(小調經散, 大調經散, 小調中湯, 調經湯의 순)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의 31%였다.

정 등³⁴⁾이 역대 38종의 문헌을 이용한 조사에서는 調經散類의 사용빈도가 33%로 나와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전체 사용빈도에서 33%임과 동시에, 최다 빈용 1-3위가 모두 調經散類로 이 처방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또한 產後浮腫 처방의 중요한 점은 血이 行하면 浮腫이 나오니 水氣로 보고 치료하지 말 것을 강조하여 비록 부종의 양상을 보이더라도 滲濕利水하지 말고 祛瘀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김 등³⁵⁾의 產後浮腫에 대한 문헌 연구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잘 반영된다.

이를 통해서 產後浮腫에 사용되는 주 처방은 調經散類임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에는 “敗血停蓄, 血化爲水, 而浮腫. 宜大調經散, 小調經散, 正脾散”라고 하여 調經散類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처방의 구성을 살펴보면 大調經散 治產後腫滿, 喘急, 尿澁. 黑豆炒一兩, 茯神五錢, 琥珀一錢, 右爲末, 烏豆, 紫蘇葉煎湯, 調下二錢.

小調經散 治產後浮腫. 當歸一兩, 桂心, 赤芍藥各五錢, 沒藥, 琥珀, 甘草各二錢, 細辛, 麝香各一錢. 右爲末, 每一錢, 溫酒, 入薑汁調服.

처방 구성을 보면 모두 琥珀의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琥珀의 효능주치와 일치하며, 產後浮腫의 病理와도 일치된다. 이에 본고에서 南瓜호박을 產後浮腫에 활용되는 것은 琥珀의 오용이며, 이는 발음상의 이유로 오용된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 韓醫書의 내용을 검토를 통해서 뒷받침하고자 한다.

4. 한국 韓醫書 『舟村新方』과 『醫方合部』의 처방 분석

琥珀과 南瓜호박의 발음상에 기인한 오용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발간된 韓醫書에 국한하여 문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南瓜호박의 도입 연대로 추정되는 16세기 말이나 17세기 초의 문헌을 바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韓國醫學大系』 및 한국한의학연구원서 발간된 『전통의학 고전국역총서』를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舟村新方』의 琥珀膏

『舟村新方』의 저자 申曼의 본관은 平山이며, 영의정을 지낸 申欽의 증손으로 이조판서에 추증되기도 하였다. 申曼의 생몰연대는 1620~1669년으로 南瓜호박의 도입연대와 비슷하다.

그의 의학사상을 살펴보면 서문에서 신만은 옛 처방의 번잡함에 얽매어, 증상에 따른 약재를 선택하기 어렵게 된 점을 한탄하고, 보통 빈한한 민가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음을 호소하면서 실용화되고 대중화된 보편적 치료의학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고방에서 구하기 힘들거나 적용이 힘든 약재를 과감하게 줄이고, 약성이 근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쉽게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약재를 사용해 새로운 처방을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저작의도에 따라서 본 처방집은 궁벽

한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간명한 구급방, 민간방과 처치법 등의 경험방이 많이 기재되었다.

이러한 시기적·의학사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南瓜호박의 활용을 살펴보는 것은 초기 도입연대부터 치료적 목적으로 활용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琥珀膏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脹滿症·塊症·疝, 及腹中諸症, 神效.

琥珀可容四五升者, 粘米五合作飯, 曲末 眞油 生清 木末, 各五合, 牡丹皮 車前子 苦鍊根 乾薑 芥子 南方椒 川椒, 各三合, 右作末, 大琥珀開蓋, 去皮後, 各藥末納於其中, 覆蓋以藁索密裹, 以黃土塗外面, 埋於糠火中, 待爛熟, 隨量飲服. 【一方, 薑汁二合, 入諸藥末於琥珀後, 覆以蓋紙, 糊隙塗黃土, 朝燃火, 翌朝取出, 盛砂椀, 隨量服之.】

琥珀膏는 脹滿症·塊症·疝 및 腹中諸症에 신평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製法을 살펴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다. 琥珀은 경도가 높은 약재임을 상기할 때 “호박이 가히 4~5 되가 되는 것에 찻쌀 5홉으로 밥을 지어 누룩가루 찻기름, 좋은 꿀, 목말 각 5홉, 牡丹皮, 車前子, 苦鍊根, 乾薑, 芥子, 南方椒, 川椒 각 3홉을 가루로 만들어 큰 호박의 뚜껑을 열고 껍질을 벗긴 후 각 약 가루를 그 속에 넣고 뚜껑을 새끼줄로 단단히 묶어 황토를 바깥에 발라 겨로 불을 지핀 속에 묻어 충분히 익을 때를 기다려 적당량을 먹는다.”와 “어떤 처방에는 생강즙 2홉을 모든 약 가루에 합한 다음 호박에 넣고 뒤집어 종이로 뚜껑을 풀로 붙이고 틈은 황토로 발라 아침에 불을 때 다음날 아침에 꺼내 사기그릇에 가득 채워 적당량을 먹는다.”라는 설명은 제법상 수궁할 수 없다. 경도가 높고 치밀한 琥珀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 약재를 넣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同書의 南瓜膏에 대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2) 『醫方合部』의 胡朴膏

『醫方合編』은 『三意一驗方』과 『村家救急方』의

내용을 주축으로 편자의 경험과 단편 자료들이 첨부된 형태의 대형 醫方書이다. 이 책은 조선총독부서고를 거쳐 이장된 필사본 1질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해 영인되어 공개됨으로써 비교적 최근에 세상에 알려졌다.

『三意一驗方』은 “三意一驗方: 李碩幹·蔡得己·朴濂·許任·本草·東醫·聞見方” ‘三意’에 해당하는 石澗 李碩幹, 鶴汀 蔡得己, 悟漢 朴濂은 光海 仁祖 연간에 크게 이름을 떨쳤던 명의이다.

『村家救急方』은 1538년(중종35년)에 金正國에 의해 편찬된 것이다. 『醫方合編』의 편자가 이 책의 서문으로 전서의 서문을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방서에 있는 처방이 약재가 없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찾아다 치료하는 것이 나으므로 처방이 온전히 기록된 방서들을 다 버리고, 단지 민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만을 고르고, 아울러 노인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서 효험이 있는 것들을 모아 한 책으로 엮었다.” 김정국의 이 말은 『醫方合編』의 편성 배경을 밝혀 주고 있다.

『醫方合編』은 이상 두 자료를 골자로, “其以下, 間書雜方·經驗”라고 하여 사이사이에 ‘雜方’과 ‘經驗’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기적·의학사상적 특징은 『舟村新方』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醫方合部』편저자는 經驗方이라고 밝히면서 南瓜호박의 음차로 여겨지는 胡朴膏를 기재하였다.

胡朴膏 - 經驗

【粘米作飯, 曲子量飯, 用清蜜, 眞油, 胡椒, 川椒, 苦椒, 乾干, 芥子, 木米, 苦蓮根, 牧[牡]丹皮, 各五合, 細末. 胡朴最大者, 開頭作孔去核後, 右材合製其中, 開頭還閉, 取眞黃土, 泥而厚塗全體, 糠火埋之, 過一晝夜後, 取出, 空心蜜水調下, 胸腹痛, 疝症, 脹症, 痰血, 腹冷等症, 神效.】

이를 살펴보면 『舟村新方』의 琥珀膏에 들어가는 약재의 목록과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큰 것을 골라서 구멍을 내고 씨를 제거하고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황토를 바른다는 것은 주치효능에서 밝힌바와 같이 흉복통, 疝症, 腹脹, 痰血, 腹冷을 치료하는 같은 경험방으로 볼 수 있다.

3) 『舟村新方』의 南瓜膏

『舟村新方』은 현재 세 가지의 전래본이 있다. 하나는 1930년 沃川에서 발견된 鉛活字本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존되어 전하는 筆瀉本이며,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전해지고 있는 『舟邨神方』 필사본이 있다. 활자본과 필사본 『舟村新方』은 저자가 같다고 보기 힘들만큼 서로 다른 편제를 띠고, 목차나 내용에 서로 공통된 곳이 아주 두드러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필사본 둘도 편제는 같지만 내용에서는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이 글자 형태를 작게 쓰고, 여백을 줄였으며 뒷부분이 생략되어 동일한 문(門)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어느 정도 시간적 선후나 傳寫 계통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서 南瓜膏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舟村新方』의 南瓜膏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南瓜膏, 南瓜可容四五升者, 粘米五合作飯, 曲[麴]末 眞油 生清 木麥末各五合, 牧[牡]丹皮 車前子 苦鍊根 乾薑 白芥子 南方椒 川椒 胡椒各三合, 右作末, 南瓜啓蓋去仁後, 藥末入于其中, 覆蓋以藁索密裹, 以黃土塗之, 埋於糠火中, 待爛熟, 隨量溫服. 一方, 入薑汁二合, 云治腹脹塊症 胸腹痛 疝症及腹中諸疾, 神效.

이는 실제적으로 同書의 琥珀膏나, 『醫方合部』의 胡朴膏와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있다. 同書에서 같은 내용을 琥珀膏, 南瓜膏로 기재하고 있으며 이는 것은 南瓜호박의 활용이 광범위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南瓜호박의 단독 효능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溫脾胃하는 약재들과 배합하였을 때 腹痛諸疾에 부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활용의 중요성은 본고에서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產後浮腫의 瘀血病理와 치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南瓜호박이 유입된 초기부터, 발음상의 동일성으로 혼란과 오용을 불러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 고 찰

박 등³⁷⁾의 연구에 따르면 產後浮腫에 산후조리를 위하여 먹은 음식의 종류에는 미역국을 먹었다고 응답한 자는 100명중 93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南瓜호박을 먹었다고 응답한자가 47명으로 전체 비율의 24.7%나 되었다. 이는 가물치와 잉어에 비해서 2~3배 높은 것이다. 산후조리시 먹은 음식이 좋다고 응답한 자는 100명 중 72명으로 그 이유는 산후부기를 빼주기 때문이라는 항목에 응답한자가 45명으로 제일 많았다. 이 외에는 산후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한다는 의미와 젓을 잘 나오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었으나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광범위한 활용에도 불구하고 產後浮腫에 南瓜호박을 사용하는 문헌적 근거가 제시된 적은 없었다. 일부 논문에서는 南瓜호박의 근거를 “『東醫寶鑑』에 소변이 잘 나오고 눈을 밝게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東醫寶鑑』에는 南瓜호박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상기한다면 이의 잘못은 명백하다. 실험연구를 보면 강 등³⁾은 南瓜호박은 뇨중의 potassium이나 sodium의 변화를 주지 못했으며, WBC counting에 있어서도 가물치와 生化湯과는 달리 별 변화를 주지 못하였다. 또한 장 등³⁸⁾이 진행한 실험에 의하면 비록 南瓜호박을 주원료로 하였다고는 하나 한약재를 같이 사용한 것으로 南瓜호박의 단독 효과로 보기는 어려워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南瓜호박의 產後浮腫 활용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南瓜호박의 사용은 琥珀의 오용이며, 단순히 產後浮腫의 활용에 잘못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잠재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琥珀은 心, 肝 膀胱經에 작용하고 活血散瘀, 利尿通淋의 효능으로 血滯經閉, 產後瘀滯腹痛, 癥瘕積聚, 血淋尿血을 치료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名醫別錄』에 “琥珀味甘平無毒. 主安五臟 定魂魄 殺精魅邪鬼 消瘀血 通五淋. 生永昌”으로 기재된 후에 모든 本草書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단 후대의 本草書는 『開寶本草』에서 “瘀血을 없애는데 지대한 효험이 있고, 大黃과 鱉甲을 이용하여 散劑로 만들면 婦人 腹內의 瘀血을 모두 없앨 수 있다.”라고 한 것과 같이 그 활용례를 확장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本草書인 『本草精華』에서도 “破結瘀, 治產後兒枕痛, 削服療瘀血至驗”라고 하여 瘀血에 대하여 효능을 주장하였다.

국내 韓醫書인 『壽世秘訣』의 琥珀丸과 『兩無神編』의 琥珀散에서도 모두 癥瘕와 氣塊를 파헤치며, 산후에 피가 잘 흐르지 못하거나 瘀血로 아랫배가 아플 때에는 모두 마땅히 이 처방을 복용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琥珀의 이러한 특징은 南瓜호박과 확연히 구분된다. 1492년 미대륙이 발견된 이후에 아시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분포하게 된 南瓜호박은 『本草綱目』에서 처음으로 그 효능이 기재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7세기 초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南瓜호박의 本草學的 효능의 기재는 제한적이다.

『本草綱目』에는 南瓜호박의 효능으로 단지 補中益氣라고만 적고 있으며, 오히려 주의사항으로 “多食發脚氣 黃疸. 不可同羊肉食 令人氣壅”라고 하여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本草綱目拾遺』에서 살펴볼 수 있다. “張石頑이 이르기를 南瓜호박은 至賤한 食品으로 《綱目》에 이르기를 많이 복용하면 脚氣와 黃疸이 발생하며 氣滯症을 발생하므로 羊肉과 같이 복용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藥性이 氣를 체하게 하고 濕을 助長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 하였다. 南瓜호박의

藥性은 그 色과 味에서 살펴볼 수 있다. 色은 黃色이고 味는 甘하여 순수하게 土의 기운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능을 補中益氣라고 하였고 中窩으로 귀경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土性은 濕土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氣의 運行을 방해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淄博本草』에서 “凡患氣滯濕阻之病 忌服”라고 이유를 설명하였고, 百病諸疾에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다면 비록 南瓜호박의 補中益氣消腫의 효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경우에 국한된 것이며, 산후부종을 비롯한 생리적·병리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產後浮腫의 病理와 治法에 대하여 『東醫寶鑑』에서 “產後浮腫, 此由敗血循經, 流入四肢故也. 血行腫消即愈”라고 기재한 것과 產後浮腫에 활용되는 처방 중 調經散類가 30%를 넘고, 이의 공통 主藥이 琥珀임을 상기한다면 產後浮腫에 南瓜호박의 사용이 잘못된 것과 오히려 이의 활용이 氣滯助濕하여 회복을 늦추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琥珀이 產後浮腫에 사용되는 主藥이라는 것은 문헌고찰 결과상 명백하다.

유독 국내에서만 產後浮腫에 南瓜호박의 오용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가? 琥珀과 南瓜호박의 오용이 同音異語의 문제라면, 한국 韓醫書에 국한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舟村新方』에는 琥珀膏가 기재되어 있다. 『舟村新方』의 저자 申曼의 생몰연대는 1620~1669년으로 南瓜호박의 도입연대와 비슷하다. 琥珀膏는 脹滿症·塊症·疝 및 腹中諸症에 신호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琥珀은 경도가 높은 약재임을 상기할 때 “호박이 가히 4~5 되가 되는 것에 찹쌀 5홉으로 밥을 지어 누룩가루 참기름, 좋은 꿀, 목말 각 5홉, 牡丹皮, 車前子, 苦練根, 乾薑, 芥子, 南方椒, 川椒 각 3홉을 가루로 만들어 큰 호박의 뚜껑을 열고 껍질을 벗긴 후 각 약 가루를 그 속에

넣고 뚜껑을 새끼줄로 단단히 묶어 황토를 바깥에 발라 거로 불을 지핀 속에 묻어 충분히 익을 때를 기다려 적당량을 먹는다.”와 “어떤 처방에는 생강즙 2홉을 모든 약 가루에 합한 다음 호박에 넣고 뒤집어 종이로 뚜껑을 풀로 붙이고 틈은 황토로 발라 아침에 불을 때 다음날 아침에 꺼내 사기그릇에 가득 채워 적당량을 먹는다.”라는 설명은 製法上 수궁할 수 없다. 경도가 높고 치밀한 琥珀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 약재를 넣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南瓜호박의 음차로 여겨지는 胡椒과 이의 활용인 胡椒膏는 『醫方合部』에서 찾아볼 수 있다. 胡椒膏는 『舟村新方』의 琥珀膏에 들어가는 약재와 유사하며, 큰 것을 골라서 구멍을 내고 씨를 제거하고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황토를 바르다는 것은 주치에서 밝힌바와 같이 癰疔, 疔症, 腹脹, 痰血, 腹冷을 치료하는 같은 經驗方으로 볼 수 있다.

실질상 같은 내용이 활용례가 同書에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고 있다. 『舟村新方』의 南瓜膏는 琥珀膏, 胡椒膏와 내용이 동일하다. 이는 기존에 없던 식물(약재)가 朝鮮에 유입되면서 발음상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琥珀-胡椒-南瓜호박으로 표시하는 등 혼란을 유발하였고, 심지어 그 활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본초효능과 섞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용이 현대에까지 이르러 널리 퍼지게 된 것은 南瓜호박이 식생이 모든 지역에서 잘 자라고, 『舟村新方』과 『醫方合部』의 저자가 “방서에 있는 처방이 약재가 없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찾아다 치료하는 것이 나으므로 처방이 온전히 기록된 방서들을 다 버리고, 단지 민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만을 고르고...”라고 밝힌 것처럼, 주위에서 손쉽게 구하고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널리 이용하면서 발생되었다고 사료된다.

南瓜호박의 민간사용도 南瓜膏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단독 사용의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溫脾胃

하는 약재들과 배합하였을 때 腹痛諸疾에 사용될 수 있는, 맛을 더하고 영양을 주는 정도의 부차적인 재료임을 염두해야 한다.

더군다나 產後浮腫에 南瓜호박을 사용하는 것은 琥珀의 오용일 뿐이며, 產後浮腫이나 온갖 질병이 있을 때는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產後浮腫과 같이 특정한 생리상황에는 주의를 요하며, 產後浮腫의 瘀血病理와 치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널리 구할 수 있는 재료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지도를 바탕으로 활용되어야 소기의 목적에 도달 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의 남용은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갖고 온다고 볼 수 있다.

IV. 결 론

산후부종에 빈용되는 南瓜호박과 琥珀의 문헌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琥珀은 心, 肝 膀胱經에 작용하고 活血散瘀, 利尿通淋의 효능으로 血滯經閉, 產後瘀滯腹痛, 癥瘕積聚, 血淋尿血을 치료하며, 이러한 효능은 역대 本草書의 일관된 記述이다.
2. 明末에 처음 도입된 南瓜호박은 『本草綱目』 甘溫 無毒, 補中益氣로 기재되었으며, 滯氣助濕의 폐단이 있어 “凡患氣滯濕阻之病忌服”해야 한다.
3. 產後浮腫의 원인은 “產後浮腫, 此由敗血循經, 流入四肢故也. 血行腫消即愈”으로 역대 의서에서 瘀血의 치료를 우선으로 하였고, 최다 頻用 처방은 調經散類로 主藥은 琥珀이다.
4. 產後浮腫에 南瓜호박이 琥珀 대신에 활용된 것은 同音異語이 문제이며, 이러한 사실은 『舟村新方』과 『醫方合部』의 琥珀膏, 胡椒膏, 南瓜膏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5.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약재)라고 전문가의 지도와 문헌적·실험적 근거가 필요함을 확인

하였다.

참고문헌

1. 오세창, 권영규, 양재하, 김광중. 민간요법에 대한 사회의식조사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16(3):443-51.
2. 이금숙, 황춘신. 한국의 전통적 민간요법이 이용실태 조사연구-성인병에 이용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1990;5(3):331-47.
3. 강구형, 백승희, 김미여, 박종현. 가물치와 호박 및 生化湯이 산후회복에 미치는 영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1;15(3):449-54.
4.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한약전의 한약(생약)규격집. 2006:424.
5. 陶弘景 集 尚志鈞 輯校. 名醫別錄. 人民衛生出版社. 1986.
6. 盧多遜. 開寶本草.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8:258.
7. 徐彥純. 本草發揮. 歷代本草精華叢書.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8. 李時珍 著 呂蘭薰 編譯. 白話全譯本草綱目. 世界圖書出版公司. 1998:2902-3, 2294-5.
9. Digital 本草精華. 한국한의학연구원. 2005.
10. 陳嘉謨. 本草蒙筌. 歷代本草精華叢書.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1. 王綸. 本草集要. 歷代本草精華叢書.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2. 黃宮繡 纂. 本草求真. 人民衛生出版社. 1987:145.
13. 추주. 本經疏證 下. 임진석 옮김. 대성의학사. 2001:561.
14. 劉文泰. 御制本草品匯精要.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5:594-5.
15. 羅達尙 主編. 新修品珠本草.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04:100-1.
16. 冉先德 主編. 中華藥海. 哈爾濱出版社. 1993:1438.
17. 羅獻瑞. 實用中草藥彩色圖集 第3冊. 廣東科技出版社. 1994:448.
18. 謝宗萬 主編. 全國中草藥匯編 上冊. 人民衛生出版社. 1996:847.
19. 趙蕾, 王秀霞, 秦佳佳, 金富銳, 劉紅梅, 袁麗華. 琥珀散配合宫腔鏡下輸卵管注藥治療輸卵管阻塞性不孕臨床觀察. 中醫藥信息. 2007;24(3):32-3.
20. 李昌雨. 國역 壽世秘訣 II.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267.
21. 남재철. 국역 兩無神編.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140.
22. 정희돈, 윤선주, 최영준. 한국 재래종 호박(*Cucurbita moschata*)의 생태 및 형태적 특성. 한원지. 1998:39(4):377-84.
23. G.J.H. Grubben, O.A. Denton. Vegetables, Plant Resources of Tropical Africa 2. Backhuys Publishers, 2004:263, 267.
24. 김종덕. 한의학에서 바라본 농산물 II. 한글그라픽스. 2006:239-49.
25. 中華本草編委會. 中華本草 第5권. 上海科學出版社. 1999.
26. 越亦成 蔣紀洋 主編. 淄博本草.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5:442.
27. 謝宗萬 主編. 全國中草藥匯編 上冊. 人民衛生出版社. 1996:595.
28. 苗明三 主編. 食療中藥藥物學. 科學出版社. 2001.
29. 신만. 국역 舟村新方.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274, 322, 346
30. 수진경험신방.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31. 洪鍾旭 俞贊植. 추출가공사를 위한 건강식품원료 200종 특강. 원일출판사. 2000:350-2.
32.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대역 東醫寶鑑. 동의보감출판사. 2005:1808.
33. 변형국, 류동열. 산후부중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4;13(1):147-58.
34. 정진홍, 류동열. 산후부중의 원인 증상 치방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학교 논문집(한의학

- 편). 1992;1(2):215-25.
35. 김형준, 이경섭, 송병기. 산후부종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995;8(1):29-47.
36. 국역 의방합부.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37. 박소윌, 김동철, 정병천, 백승희. 출산후 여성의 산후조리 및 산후질병에 대한 인식 조사. 동서 의학. 2000;25(3):22-46.
38. 장상문, 이주백, 안홍, 김지행, 박난영, 韓春姬, 張慶鎬. 호박 및 한방 생약재 추출물이 산모의 혈액성분에 미치는 영향. 식품산업과 영양. 2002;7(1):45-9.